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고린도전서 10:19-22

김양석 목사님

나는 1995년 12월에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 류목사님이 김천에서 우상 막는 조직을 만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았다. '우리가 인천에서 우상 막는 조직을 만들자' 해서 모이게 되었다. 전도학교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매주 핵심을 마치고 주사랑교회에서 모였다. 마산에서 윤성주 목사님이 막 시작을 했을 때다.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무속전도학교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무속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월요일에 경인전도학교에서 팀을 이뤄서 무당집에 가고 있다. 매주, 매일 다녔다. 나의 4대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나와 형님을 낳을 때 굿하고 기도해서 낳았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치매로 돌아가시고, 나는 조울증에 시달렸고, 딸은 지금도 조현병 환자다.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 한이 생겼다. 나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불신자 상태를 깨닫고 나니 답이 나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았구나.' 우리 부모님도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에 완전 묶인 삶을 살았던 것이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만 60세다. 40살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나는 이유를 몰랐다. 내 교향이 강원도 고성인데, 강원도 사람이 착하다. 악한 짓은 못한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개인 가정 가문이 박살이 났다. 이유를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 창세기 3, 6, 11장에 묶이고 함정에 빠지고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틀에 잡히고 불신자 상태의 울무에 갇혀 있었다.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입에 계거품을 물고 다녔다. 밤에는 무당을 잘 만나기 힘든데, 기도하는 산에 올라갔다. 인천시청에 가서 우리가 민간인으로서 산림청소를 하겠다 했더니 좋다고 출입허가증을 만들어주었다. (웃음) 그래서 가서 산마다 올라가서 무속인들을 두고 사역하고 쫓아내고 그랬다. 류목사님은 복음을 처음 깨닫고 화가 너무 나서 증들 뺨을 때렸는데. (웃음) 나는 곳당에 가서 그런 것 다 하고 다 뒤집고 나오고 그랬었다. (웃음)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 내 인생, 가정, 가문 다 빼앗기고, 콩가루 집안이 되었던 것 생각하면 한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운동을 펴고 있다. (웃음) 20년의 노후를 다 말씀드리려면 1주일만 걸린다. 1시간 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다. 내가 무속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50명 정도 부흥이 되었다가 다단계로 교회가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2005년에 동부교회에 전문사역자로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6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개척을 해서 이제 6년 정도가 되었다. 사단이 많이 건드리더라.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흑암 꺾고 박살내고 캠프하고 오면, 사단도 우리 집에 와서 캠프를 하고 갔더라. (웃음) 처음에 그랬다. 이유없이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다가 치유가 되면서 축복의 전문사역이 되고 발판이 된 것이다. 나는 무속사역을 하고 전문사역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1.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 (1)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여기에서는 저주, 재앙이 차이가 안 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니까. 창세기 3장, 근본 영적 문제는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똑같다.
- (2) 두 번째가 우상숭배다.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된다. 고린도전서 10:19-22,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친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친구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된다. 사도행전 5:16,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면 상처를 받는다.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이 된다. 감정이 다 깨진다. 이게 무엇인가? 깨지고 망가진 감정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섭섭함, 혐기(다혈질), 우울증, 자폐, ADHD, 노이로제,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성격장애로 간다. 정신적인 부분이 전부 상한 감정에

의해서 된다. 사단이 스트레스로 괴롭힌다. 감정이 망가지고 마음이 깨진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가 상처를 주는가? 귀신이 상처를 준다. 따라다니면서 상처를 준다. 우상숭배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 (3)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런 정신문제가 오는 것이다.
 - (4) 육신문제가 온다.
 - (5) 내세문제가 온다.
 - (6) 후손 3, 4대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
- 이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다. 이 말씀이 너무 진리다.

2. 우상숭배 집안의 특징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이다. 저주, 재앙의 내용은 우상숭배한 만큼 온다. 이 집안은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 문제를 공통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특징이다. 저주 재앙의 내용이다.

- (1) 조실부모다. 부모님 중 한 분을 일찍 여윈다. 사건, 사고, 질병으로 반드시 그렇다.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일수록 그렇다. 요한계시록 2:20 이하에 보면 '내가 우상과 짝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은 갑자기 사고 만나서 중증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너희 자식을 쳐서 죽이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네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갈라디아서 6:7, "심은 대로 거두리라." 3, 4대. 못 빠져나오면 바로 이렇게 성취되어 버린다. 무서울 정도로 성취되어 버린다. 말씀은 100%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게 되어 있다.
- (2) 일부중사가 안 된다. 본래의 남편, 본래의 아내와 거의 못 산다. 이혼한 경우가 많다. 우리교회에는 무속인 출신 권사님이 있는데, 딸 여섯이 있는데, 다 이혼했다. 잘 안 되는 것이다. 우상숭배 집안, 즉 무속인 있거나, 불교 집안이거나, 종가집이거나, 점치고 굿을 많이 하는 집안이거나, 미신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 (3)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이 온다.
- (4) 각종 정신질환이 온다. 정신질환이 257가지가 있다.
- (5) 각종 중독 환자가 된다. 알콜, 도박, 음란, 도박, 컴퓨터, 낚시, 춤바람, 일, 여러 가지에 중독된다. 좋은 것에도 중독된다. 일 잘 하는 사람과 일 중독자는 다르지 않다. 일을 안 하면 못 견뎈다. 청소 중독도 있다. 매니아보다 깊은 것이 홀릭이다. 김정은은 전쟁 중독 아닌가? 3, 4대 대물림이 되었기 때문이다.
- (6) 단병이 내력이 된다. 사건, 사고, 질병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이 집안에 나온다.
- (7) 가난의 저주다.
- (8) 백수건달이다. 개인은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성실하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된다. 직업도 자꾸 바꾸게 된다. 사단이 조종해서 이렇게 딱 만든다.
- (9)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온다. 황당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무속인 집 자녀들을 만나면 딱 이대로 된다고 고백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오게 되어 있다. 우리 집에서 다 당했던 일들이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 (10) 3, 4대 콩가루집안이 되는 것이다. 내가 20년 발품 팔아서 터득한 내용이다. 전 세계가 여기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 100명을 보고도 못 건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데,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다(행5:42). 나는 이 메시지를 전부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 2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는가. 친한 무당도 있다. "목사님, 놀라오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교회 다니면 전부 종교생활일 뿐이다. 목사도 사모도 복음 없으면 무당 된다. 로마서 8:9,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한다.

무당들은 하나님 이야기해도 괜찮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괜찮는데,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 자기는 괜찮는데 자기가 모신 할아버지가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했다. 사단과 우상은 그리스도만 무시워한다. 20년 동안 이 운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대하소설로 다섯 권은 나온다. (웃음)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3. 무병 (신병)

(1) 무당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다.

① 강신무다. (행16:16-18) 평소에 교제하던 귀신과 결혼식을 하는 것이 내림굿이다. 이 사람들은 신접, 영점을 친다. 강신무는 수도권과 북한에 많다. 이북이 그래서 세다고 한다. 한국 무당의 대모가 김계화다. 은퇴해서 물러나서 강화도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② 세습무다. 세습되어서 내려온다. 할머니, 딸, 며느리, 손자, 계속 세습된다. 이것은 영남, 호남에 많다. 시골에서 깃발을 꽂아놓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제사장 역할을 한다. 당골래 무당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가을걷이가 되면 곡식을 걸어서 가져다주고 그런다.

③ 학습무다. 역학, 철학, 명리학을 공부해서 점을 치는 것이다.

지금은 전국에 이것이 섞여서 분포되어 있다. 굿에는 선거리가 있고 앉은거리가 있는데, 선거리는 실제 조상의 모습이나 신령의 모습을 실어서, 신령이 원하는 대로 뛰기도 하고, 작두를 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한다. 깃발은 빨간 깃발이다. 앉은거리는 앉아서 점을 치는 것이다. 부적을 쓰고, 쌀 던져서 알아맞히는 것이다. 진짜 무당은 선거리다.

(2) 무당이 앓는 신병은, 크게 세 가지로 치고 들어온다. 이것이 2.의 요약이다. 몸을 친다. 경계를 친다. 가족을 뒤집는다. 이런 것이 가장 심한 게 무당 집안이다. 그 다음이 점 치고 굿 많이 하는 집안, 그 다음이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가집이고, 불교 집안이고, 천주교 집안이다. 행위대로 갇으시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온다. 무당,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신기가 많이 쌓인다. 귀신하고 많이 교제하니까 신기가 쌓인다. 뿌리내려서 열매로 무당도 스님도 나온다. 무당 다음에 신기 많은 사람이 연예인이다. 연예인 중에 신병 앓는 사람이 많고 무당 된 사람도 많다. 한두 명이 아니다. 일제 때에는 무당이 기생, 기생이 무당 역할을 했다. 그게 오늘의 연예인 아닌가. 국악 사물놀이 패를 보면 전부 우상숭배 집안이다. 신기가 쌓이는 사람의 직업이 예술에 뛰어나다. 끼 많은 직업군이 노래, 춤, 음악, 미술, 시, 국문학 같은 것이다. 주로 밤에 일하는 직업이 많다. 밤에는 초롱초롱하고, 낮에는 계승스레하다. 유흥 계통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이다. 복을 깨달으면 이것도 축복이 된다. 전문사역의 발판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된다.

① 세 가지로 치는데, 몸을 친다. 온 몸이 다 아프다. 약뭉 꾸고 가위 눌리고 뒹가 보이고 들린다. 예지 예감이 뛰어나다. 이게 신병, 무병이다.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병이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 평범한 주부로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시작된다. 꿈에 조상이 나타난다. 밥맛이 없다. 몸이 마르고 시름시름 아프다. 병명이 없다. 신경성이라고 한다. 의사가 무병을 전혀 모르지 않다. 온갖 굿하는 소리가 들린다. 대낮에도 저승사자 같은 것이 보이고 신령이 보인다. 먹으면 다 토한다. 결국 어디로 가나? 무당집에 가게 된다. 귀신이 누구를 붙여서라도 가게 만든다.

② 막으려고 굿을 하다가 점점 가난해진다. 살 수가 없도록 만든다. 사단이 만든 광야 시간표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망한다.

③ 이 정도 치는데도 무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가족을 친다. 인다리라고 한다. 사람을 죽여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다. 남편을 죽이고, 이혼하게 하고, 자식을 친다.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 것이다. 무당들 만나보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서 하는 거라고 울면서 말한다. 무당 되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한두 번씩은 다 한다. 그런데 귀신같이 와서 살린다. 이렇게 무병, 신병을 앓는다. 심진송은 네 번 자살시도를 했다고 한다. 동맥을 끊기도 했

다. 쓰러졌는데 남편이 이상하게도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한다. 그래서 와서 살린 것이다. 산에서 목을 땀더니 동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서 올라갔다가 발견하고 살렸다. 죽지도 못하게 한다. 이게 사주 팔자 운명이구나 하고 체념하고 신을 받는다. 못 빠져나오는 것이다.

인친 만수동에는 감리고 목사 아들이 무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갔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점을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갔더니 눈이 뒤집어졌다. 환자위만 보이면서 '기독교에서 왔네?' 하는 것이다. "야, 너는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줄 모르느냐?"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것이다. 안방에 목사 아빠가 자고 있었다. "아빠, 목사들이 와서 깽판쳐요!" 안방에서 목사가 욕을 하면서 칼을 들고 뛰어나왔다. 감신대를 정식으로 나온 목사다. 하도 기가 차서 불렀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고 나발이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

4. 무당이 되는 과정

평소 사귀던 귀신과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남녀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 사랑의 기운이 찬다. 자기 전에도 애인 얼굴이 보이고 밤만 먹어도 애인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 그래서 주례자를 부르고 결혼 날짜를 정한다. 예식장에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혼집을 꾸린다. 그러면 이때 남편만 쳐다보고 살아간다. 남편이 돈 벌어주고 즐겁게 해 주고 다 해주니까, 무당 되는 과정이 이것이다.

- (1) 귀신과 평소에 교제한다. 사귀다. 그러면 뭐가 차나? 신기가 찬다.
- (2) 주례자가 신어머니, 신아버지다. 선배 무당을 말한다.
- (3) 신굿 날짜를 잡는다. 이것을 택일이라고 한다.
- (4) 예식장이 굿당이다.
- (5) 친지를 모아놓고 한다.
- (6) 그래서 내림굿을 한다.
- (7) 신당, 법당을 차린다.
- (8) 그러면 누가 지아버가 되는가? 점치는 귀신이 지아버가 되는 것이다. 귀신이 밤에 관계도 해 주고 돈도 벌여주고 다 한다. 남편이 필요가 없다. 똑같이 해 준다. 절대 못 빠져나온다.

5.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리아만 된다.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로마서 8:9,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 (1) 마태복음 1:16,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다.
- (2)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려고. 요한일서 3:8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 (3) 그 직분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창세기 3장의 세 가지다. 창세기 3:14, 15, 21이 중요하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단이 그 일을 저질렀다. 그 사단의 일이다. 누구러야만 되는가?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한다. 사단과의 전쟁을 영적으로 이미 선포하셨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 피 흘림의 방법이다. 창세기 3:21, 피 흘림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덮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5:42,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